한암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주의 집중 놀이 모습. 사진=천미희 기자

천안 한암사서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첫 행사

"정말 재미있어요"

전문 지도교사 10여명 방문 눈높이 맞춘 프로그램 다양 은해사 · 관음사 등서 열릴 계획

6월 26일 천안 한암사 불교문화원(주지 원철) 소극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의 '찾아가는 어린이법당'이 어린이들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경력 18년의 이수안 사무국장을 비롯 경력 8년 차 박나영 담당 선생님을 비롯 10여 명이 지도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평소 엄마를 따라 절에 와도 별도로 마련된 법회 프로그램이 없었던 아이들은 이날 율동이 곁들여진 찬불가를 배우며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삼귀의, 사홍서원 등 의식가 밖에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율동과 함께 부르는 신나는 찬불가는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어디 그뿐인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로케트, 도미도 놀이, 공기총 놀이 등 지도교사들과 함께 한 과학놀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곳곳에서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낯선 선생님들의 진행으로 법회가 진행되자 부끄러워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지민이도 과학놀이가 시작되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왔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법회를 열어주고 싶어 '찾아가는 어린이법당'을 신청했다는 원철 스님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와준다면 어린이법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대만족이었다. "정말 이렇게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은 줄 몰랐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에 오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지도교사들의 능수능란한 법회 진행으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냈다. 반야심경, 삼배 등 사찰 습의 시간, 과학놀이, 찬불가, 영화상영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아이들은 흩어질 줄을 몰랐다.

"선생님! 다음주에 또 오나요?" 절에서 보낸 하루가 꿈결 같이 느껴지는 아이들의 아쉬움이 질문에 담겨 쏟아졌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다음에 같이 절에 가자고 할래요." 다겸이는 오늘 법회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신이났다.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전체 진행을 맡은 이수안 사무국장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대불어는 이번 한암사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자체 평가 후, 지역의 어린이들을 한데 모아 지역별로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을 열거나 지역의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구상중이다.

천안에서 열린 첫 찾아가는 어린이법당을 시작으로 양산 화제 여름불교학교, 은해사, 적천사, 봉화 관음사 등의 어린이들을 찾아가 법회를 진행하게 된다. 대불어는 전라도, 광주 등 지역 사찰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장애인요양시설 '반야원' 개원

숲길 · 농원 조성 통한 치료효과 기대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은 6월 26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반야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반야원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김채용 경남부지사, 김한겸 거제시장 등 1천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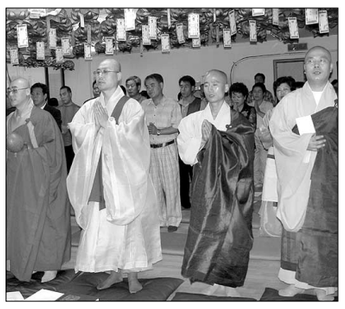
정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를 겪는 많은 이들도 고귀한 불성을 갖춘 존재임을 인식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반야원은 94년 비인가 시설로 개원된 치자마을을 2000년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인수한 후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시설로 인가를 얻고, 2004년 4월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변경 인가를 얻어 개원하게 됐다. 2001년 기공식을 갖고 시설 신축을 시작한 후 2004년 4월 준공식을 가진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반야원은 생활실, 체력단련실, 생활기능훈련실, 프로그램실, 명상실, 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설을 둘러싼 숲을 명상을 위한 숲길로 조성하는 한편, 대규모 농원, 화원을 일궈 중증장애인들의 정서순화와 치료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사찰문화보존연구원 문 열어 화장문화 보급, 자원봉사 조직



다양한 불교문화를 포교에 접목한 사찰문화 보존연구원이 대구시 중구에 문을 열었다.

사찰문화보존연구원은 25일 종수 스님(BBS 대구불교방송 총괄 국장), 사찰문화보존 연구원 원장 효신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사진)를 봉행하고 사찰음식연구회, 불교명상연구회, 사찰문화체험테마연구회, 사찰체육진흥연구회, 불교장례다비문화홍보실천회, 불교자원봉사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것을 밝혔다.

"도시의 황폐함 속에서 쌓인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을 보다 풍요롭고 건전하게 하고자 설립하게 됐다"는 원장 효신 스님은 "선체조와 선명상, 태극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교적인 장례법인 화장 문화의 보급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사찰음식 강좌 개설과 자원봉사 조직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사찰문화보존연구원이 단순 조직 형태를 벗어나 사찰문화를 잘 보존하고 활용 ·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연구물을 쏟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에는 대형 산소발생기가 설치돼 불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숲속과 같은 환경 속에서 정신과 육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양산불교련, 한국戰 학살 진상규명 촉구

양산불교연합회(회장 무호)는 7월 1일 양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6 · 25 전쟁 전후 양산에서도 대규모 양민 학살의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양산은 1950년 6 · 25전쟁 이후 음력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 집중적으로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위령탑 건립, 천도재 추진 등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유골발굴조사단을 꾸리고 △억울한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 △유골안치 △천도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강서예술촌 3주년 기념식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 매김한 강서예술촌(촌장 강세우)이 6월 26일 개관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강서예술촌 설립자 청원 스님의 우산전시 및 다기 전시회와 함께 열린 기념식에는 안병회 강서구청장을 비롯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대종사 법계품서 축하 법요식

불기 2548년 전국승가학인연합 불교학술대회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참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간화선 수행의 역할과 방법을 밝혀 한국불교 수행의 문을 확립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될으로 기대를 모은다. (053) 983-2500 배지선 기자

대구 법왕사 백고좌 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는 7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0일간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제 13회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조계종 대종사 혜정 스님과 원로의원 정무 스님 등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대덕 100명을 법사로 초청해서 법화경과 화엄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법회 입재 전날인 17일에는 정무 스님의 건강특강과 국악인 신영희 씨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053) 766-3747

배지선 기자

'파란 2004' 발대식 및 상견례

청년환경센터, 천성산대책위,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환경 동아리, 사회당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50여명이 7월 1일 동대구역앞에 모여 '파란 2004' 발대식을 갖고 '고속철 2단계공사반대, 천성산 살리기, 느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장정에 나섰다.

대장정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간 대구-경산-경주-울산-천성산-부산 등 고속철도 2단계건설 구간 약 150Km를 따라 걸으며, 고속철도 건설의 반환경적인 내용을 알리는 도보순례로 진행된다. 배지선 기자

유금사 장사상륙작전 천도재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열린 호국영령 천도재 모습.

경북 영덕 유금사(주지 혜관)는 27일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중 장사 상륙작전에서 희생된 학도병 701명의 호국 영령을 천도하는 천도재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봉행된 이날 행사는 천도재에 이어 자비의 쌀 나눔 자선공연이 이어졌으며, 혜관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모인 쌀은 지역의 복지단체와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 학도병 등이 중심이 돼 감행된 작전으로 북한군의 전력을 흩트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무사히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지선 기자

98년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속개를 위한 승적정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승적정정 신청자들은 지난 6년여간 수행납자 본연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수행처에서 진심으로 참회자속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간 종정 예하를 비롯한 원로의원 큰스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 여러차례 교시와 유시 등을 통해 종단대화합 조치의 필요성을 하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분심참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라도 호계원과 총무원 등 해당 종무기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적정정 조치와 특별법에 의한 초 · 재심 합동 재심사 속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 이하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및 종단 중진스님들께서도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 진정한 종단대화합이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아량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특별법에 의한 승적정정 및 초 · 재심 합동재심사 속개>의 당위성을 설명드리오니 종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 계류중이므로 승적은 당연히 정정(복적)되어야 합니다.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1999년 10월 12일 제14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제정되었으며, 1998년 12월 1일 종단사태의 와중에 소집된 제136차 임시중앙종회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호계위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98년 종단사태 관련자 중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에 계류중인 이정우 스님이 2003년 6월 9일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단의 최고 법률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는 동년 7월 24일 제24차 심판부를 열어"신청인들이 해종특위법에 의해 받은 징계는 특별법에 의해 유예된 상태이며,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위 판결에 근거해 이정우, 김원학, 박현소, 이성문, 진현근 등 5명의 신청인들은 동년 11월 11일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멸빈의 징계효력이 유예되어 있으며, 승적부상의 징계내용 정정과 승려로서 제반 공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법규위원회 심판결정에 따른 승적 정정(복적)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 총무원의 납득할 수 없는 승적정정 유보는 종법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인들의 이같은 승적정정신청에 대해 총무원은 주무부서인 호법부의 징계변경 요청에 따라 승적관리부서인 총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적정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통보를 받은 지 불과 이틀 후인 동년 11월 29일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의 승적정정조치 철회요구에 승적정정을 유보하고, 2004년 종회에서 지난 19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종헌개정을 통한 종단 대화합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총무원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원의 그같은 조치는 법규위원회의 판결과 특별법의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행정집행부서인 총무원이 종단 최고법률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의 판결이행을 거부하는 심각한 종법질서문란이라 생각되었으나, 총무원장 스님의 대승적 종단대화합 의지를 믿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18일 제162회 임시중앙종회와 동년 4월 1일 제163회 임시종회에서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두 차례나 잇따라 부결됨으로써 더 이상 종헌개정을 통해서는 1998년 종단사태 해결을 위한 화합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신청인들은 특별법에 의한 초 · 재심 합동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승적 정정(복적)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승적 정정(복적) 재요청서>를 동년 5월 12일 재차 총무원에 발송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별법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재심사의 과정.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특별심사위원회는 호계원장 월서스님을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특별심사위원으로 1999년 10월 29일 구성되었습니다.

<해종행위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96명과 1998년 11월 21일 이후 <호계원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26명 등 모두 123명 중 44명이 재심사를 신청하여, 특별심사위원회는 1999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제1차 심리를 갖고 재심사 심리개시를 하였으며, 2001년 9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또한 2003년 3월 중앙종회의원 종광스님의 질의에 의해 제출한 자료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가 1999년 10월 29일부터 2001년 9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재심사를 신청한 44명 뿐 아니라 미신청자를 포함 총 123명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2003년 5월 21일 원로회의가 "98년 종단사태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처리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년 5월 26일 원로회의 및 의원스님 들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해종특위에 의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5명에 대해서는 특별심사위원회가 심리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징계가 유지되고 있다" 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월서스님께서 불과 4년 전인 1999년 10월 29일 별좌한 제1차 특별심사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사개시를 명확히 선언했을 뿐 아니라 "소위 정화개혁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님 가운데 많은 분들도 주변의 어려운 관계에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결단에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종단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의 여망과 이에 적극 호응해 온 여러 스님들의 결단을 존중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응당한 결과로 화답해 드리겠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마감기일 이후에도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자 한다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의미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징계 재심사결정이 확정되고, 현재까지 계류중인 부분에 대하여 '위헌' 운운한다면 <해종특위법> 자체도 종헌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헌소지가 있는 해종특위법이나 그 법을 대신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징계자들에 대하여 특별심사위원회가 조속히 심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음은 종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무원은 종단의 최고 법률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의 판결과 법무법인들의 명백한 법률적 유권해석에 근거해 주무부서인 호법부가 징계변경 요청을 하고, 승적관리부서인 총무부장이 지난해 11월 행정조치하려다 유보했던 적법한 승적정정(복적)의 행정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98년 종단사태는 특별법에 의한 초 · 재심 합동재심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외 사안들에 대하여는 근원적인 종헌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장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창하신 종단대화합은 모든 종도들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신청인들은 호계원과 총무원 등 해당 종무기관에서 하루빨리 특별법에 의거해 재심사를 속개할 것과, 적법한 승적회복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불기 2548(2004)년 6월

98년 종단사태 관련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신청인 이정우, 이성문, 박현소, 김원학 배상